

# “5계, 현대인은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

## 인환 스님, 불교학연구회 춘계학술대회서 기조강연

계율은 계·정·혜 삼학의 근본이다. 불자와 불자 아님을, 출가자와 재가자를 나누는 경계가 된다. 불교학연구회(회장 본각)가 5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계율의 현대적 재조명'을 주제로 개최한 춘계학술대회에서 인환 스님(前 동국대 교수)은 대승적으로 5계를 실천하자는 취지의 '계율의 현대적 재조명'을 기조강연 해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인환 스님의 기조강연을 소개한다.

인환 스님은 '세삼 말할 나위도 없이 참선 수행에 계율이 가장 중요하다. 먼저 허물을 여의고 잘못을 막지 못한다면 어떻게 성불할 수 있겠는가'라는 <선원정규> 첫머리 구절을 예로 들며 3학의 근본이 계에 있음을 강조했다. 불자의 기본규범인 5계를 현대적·대승적으로 재해석해 강연한 스님은 "5계는 소극적으로 받아 행하는 태도(止持戒)와 적극적으로 받아 가지는 태도(作持戒)로 나뉜다. 계를 지니는 마음가짐과 태도에 따라 공덕과 결과의 차이가 크다"며 "대승적인 견지에서 적극적으로 계를 받아 행하는 작지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스님은 "산 목숨을 합부로 죽이

지 말라'는 불살생계는 소극적 지계계의 관점에서 하품살생계, 중품살생계, 상품살생계로 나뉜다. 하품살생계는 미물을 밟는 등 모르고 범하는 살생을 의미하며 중품살생계는 육류를 섭취하는 것으로 간접적으로 저지른 살생을 뜻한다"고 말했다. 인환 스님은 "불살생계의 소승적 핵심은 사람을 죽이는 상품살생계를 범하는 일을 금지한 것"이라고 정리했다. 스님은 "대승적 안목에서는 자비로 타인을 생각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인간방생과 환경운동이 불살생계"라면서 "살생계를 바로 지니 실천하는 것이 환경운동과 환경혁명의 첫걸음이 된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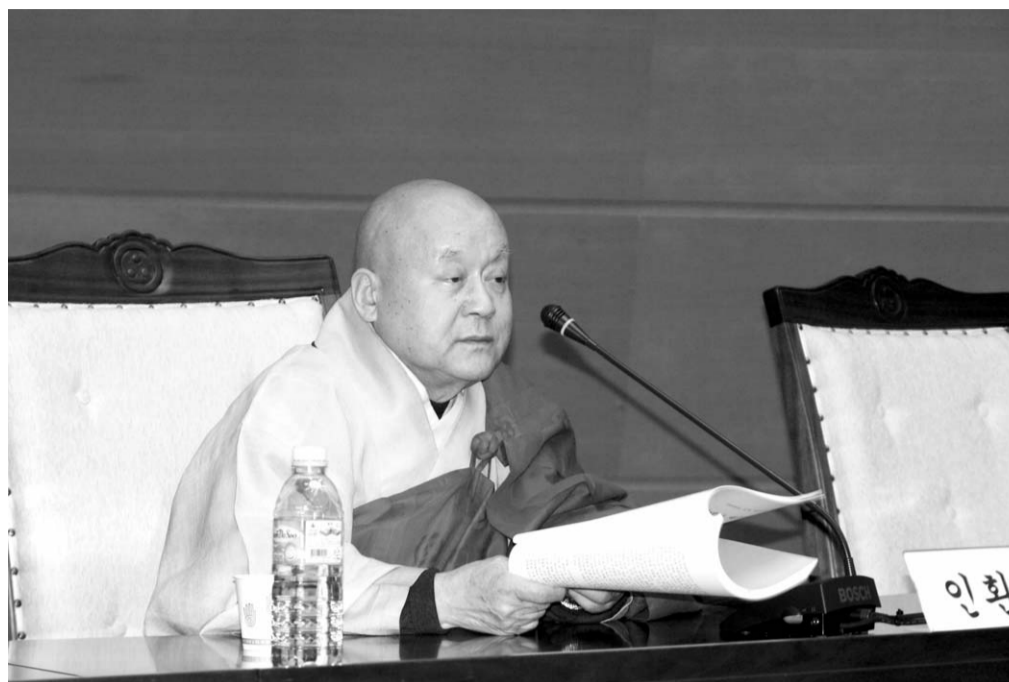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는 불투도계에 대해 스님은 "남의 것을 훔치지 않는 것을 초월해 타인에게 적극적으로 베풀어 주는 일을 하라"는 보시가 불투도계의 실천"이라 주장했다. 스님은 "베풀어 있어 곁과를 미리 바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금전 등 물질적 베풀 뿐 아니라 부드러운 얼굴과 친절한 말씨 등 정신적인 베풀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인환 스님은 "삿된 율행을 하지 말라"는 불사음계는 맑고 깨끗한 생활을 위해 계속 정진하고 신뢰와

사랑이 바탕이 되는 성스러운 성생활을 의미한다. 출가자는 출입식념(Anapana Sati)의 부처님 호흡법에 정력을 수렴력으로 전환하고, 재가자는 신뢰와 사랑을 생명처럼 알고 가정과 사회를 바로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불망어계를 설명하면서 스님은 "신(身)·구(口)·의(意) 삼업 중 입으로 짓는 업이 가장 많다. 때문에 구체적으로 속이는 말(妄語), 아첨하는 말(綺語), 이간질하는 말(兩舌), 유하는 말(隱口) 등으로 세분해 경계한다"고 말했다. 인환 스님은 "현대적·대승적 불망어계는 단지 거짓말을 않는 것이 아니라 5계를 지닌 불자라면 반드시 부드러운 말, 사랑스러운 말, 책임지는 말을 해야함을 뜻한다"고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 스님은 "참선 정진하고 기도·예배 등의 수행을 통해 업을 짓는 몸과 입을 정진하는데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님은 "술 마시지 말라"는 불음주계의 취지는 항상 맑은 정신을 유지하라는 것이 있었다"고 지적한 뒤 "현대 사회에서는 술 뿐 아니라 마약, 담배 등 해로운 화학성분의 제품들도 포함시켜 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월 10일 불교학연구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계율의 현대적 재조명'을 주제로 기조강연하는 인환 스님.

인환 스님은 "5계의 기본정신은 모든 종교가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이라면서, 5계의 실천행을 지구상의 장벽을 없애고 평화로 구현하는 방법으로 삼자"고 제안했다.

한편 인환 스님의 기조강연에 이어 이자랑 박사(동경대가 갈마(鵜麿)를 함께 하는나의 유무로 화합승과 과승이 구분된다는 내용의 '승가화합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를 발표했다. 마성 스님(동국대 강사)은 '성문계와 보살계의 양립 문제'에서 남방상좌부 불교 국가의 '승가법(The Act of Sangha)'을 예로 들며 "보살계만으로는 승단을 통제할 수 없다"며 "보살계가 추구하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공 스님(동국대 강사)은 '율과 청규의 관계정립에 관한 고찰'에서 율과 청규의 관계를 계승과 독립적 입장에서 조

명했다. 경성 스님(승가대 강사)은 '율장과 중현 종법과의 비교연구'에서 "조계종 중현·종법은 현실에 적합한 수행규범으로 율장과 청규의 응용이자 활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재수 연구원(전자불전연구소)은 '율장에서의 환경 및 생명에 관한 연구'를 통해 "참다운 삶을 지향하는 율장의 살아있는 실천에 대해 진정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 금오스님 관련 자료 수집 금오사상연구소 7월 20일까지

금오사상연구소(이사장 월세)는 열반 40주기를 맞은 금오 스님의 문집 발간을 위해 금오 스님 관련 자료와 한국불교정화 운동사 연구 자료를 수집한다.

금오 스님은 민족주의 승려이자 선학원 승려대회 주역으로 정화불사의 주체적 역할을 했던 선지식이다.

금오 스님의 방명록, 편지, 설법, 일기장, 선어록, 법문, 사진, 삽화 등과 금오 스님 중심의 한국불교정화 운동사 연구논문을 대상으로 하며, 연구논문은 원고지 100매 내외 분량으로 당선자는 상금 200만원을 받게 된다.

원고마감은 2008년 7월 20일까지. (02)736-1026

조동섭 기자

## 한국선학회 학술대회 5월 22일 동국대서 개최

한국선학회(회장 현각)는 5월 22일 오후 2시 동국대 다량관 세미나실에서 춘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김호기 연구교수(불교문화연구원)가 '최초기 한국선법의 전래와 그 성격'을, 윤월 스님(동국대 강사)이 '중국초기 선종의 사상과 수행'을, 강형숙(동국대 박사과정 수료)씨가 '해바라라 탄트라'의 관정에 관한 고찰'을, 황인규 교수(동국대)가 '선각국사 도선 종풍의 계승 및 전개'를 발표한다.

정기총회에서는 5대 회장 선출 등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011)9647-5503

조동섭 기자

## 한국불교심리학회 학술대회 '연기론과 심리치료' 주제로

한국불교심리학회는 5월 24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연기론과 심리치료'를 주제로 봄 학술대회를 연다.

김성철 교수(동국대)가 '연기론의 인지치료적 활용'을, 윤호균 교수(가톨릭대)가 '은마를 상담과 연기론'을 주제로 발표한다. (010)9582-9119

조동섭 기자

## 부여 정림사지 문화예술공연 문화재청 우수사업 선정

### 문화재청, 문화재 활용 우수사업 4건 선정 발표

부여 정림사지 문화예술공연이 문화재청(청장 이경무)의 지자체 문화재 활용 우수사업으로 선정됐다. 문화재청은 5월 14일, 부여 정림사지(사적 제301호) 문화예술공연과 완주문화유산 사업, 광산 월봉서원 문화재현, 신안 증도 소금밭 체험을 문화재 활용 우수사업으로 선정하고 사업 내용에 따라 2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자체 문화재 활용 우수사업 지원 프로그램은 문화재가 엄격하고 박제화된 보존대상이면 것에서 탈피해 국민의 문화향유권 신장과 지역

문화진흥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이다. 문화재청은 지자체에서 신청한 20건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력, 콘텐츠의 우수성, 지속발전 가능성, 문화재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전북 완주군, 광주광역시 광산구, 전남 신안군, 충남 부여군에서 신청한 4건이 최종 선정됐다.

부여 정림사지는 1942년 발굴조사 당시 '대평 팔년 무진(大平八年戊辰) 정림사대장당초(定林寺大藏當草)'라고 쓰여진 1028년 고려 초기기와 명문(銘文)이 발견돼 정림사라고 불린다. 국보 제9호로 지정된 백

제 때의 5층석탑은 고려시대 이전부터 정림사가 있었음을 알게 한다. 정림사지 문화예술공연은 정림사지의 역사적 이야기를 소재로 장차물을 공연하여 폐사지 보존에 대한 필요성을 알리는 사업이다.

한편 문화재청은 선정된 지자체의 문화재 활용사업에 대해 문화재청의 후원 명칭과 사업 로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기획·추진과정 등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예정이다.

조동섭 기자

‘현대불교’ 후원은  
포교에 동참하는 길!

## 선리연구원 학술 우수상 문물식 박사 수상

### 제2회 선리연구원 학술상 시상 및 학술회의 열려

한국불교선리연구원(연구원장 법진)은 5월 20일 하림사에서 제2회 학술상 시상식 및 학술회의를 열었다.

학술상은 올해 우수상 1편이 추가돼 학술상 3편과 함께 총 4명의 연구자가 학술상을 받았다. 문물식 박사(원광대 강사)가 '용수의 <십주비바사론>에 나타난 출가보살과 재가보살의 계에 대한 연구'로 우수상을 수상했다. 공만식 박사(동국대 강사)가 '초기불교의 음식과 수행의 관계에 대한 고찰'로, 유근자 박사(동국대 강사)가 '간다라 출가유성(出家豫城) 불전도(佛傳圖)의 연구'로, 정영식

박사(부산대 강사)가 '간화선과 화엄의 관계'로 학술상을 받았다.

연구원 관계자는 "문 박사 연구는 학문적으로 정리되지 않았던 수계와 지계의 문제를 대승논에서 근거해 풀어 보려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우수상 선정 사유를 밝혔다. 심사위원들은 "출가자의 경우 대승불교권인데 소속율인 <사분율>에 근거해 구족계를 받아도 되는지, 재가자의 음주를 어떻게 볼 것인지 등,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십주비바사론> 등에서 찾아 제시했다"며 "계와 율



에 대한 재조명과 현실적 응용을 위해 앞으로 좋은 지침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고 평가했다. 한편 선리연구원 학술상은 불교학을 전공하는 소장학자의 연구기반 마련과 한국불교학 연구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선리연구원이 제정한 학술진흥사업으로 올해로 제2회를 맞았다. 시상식 후에는 수상 논문들이 학술회의를 통해 발표됐다.

조동섭 기자

**불상, 석탑, 석등, 사찰공사 전문업체 일심석재**  
대한민국 석공예명장의 이름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활동서: 활동서는 색상이 아름답고 천 년의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아 절반이 많고 쉽게 부식되는 중국산 수입 물과는 차원이 다른, 석질이 우수한 의산에서만 생산되는 무철분 화강암입니다.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931-1  
전화 063)836-0231 팩스 836-7527  
011-673-7527

김국수 석공예명장

·대한민국 석공예명장  
·전라북도 무형문화재(제36호)  
·대한명인(06-122호)  
·현 일심석재/일심산업 대표이사  
·전국기능올림픽 석공예 2위  
·대한불교조계종 금산정사 경로패 수상  
·원광대학교 대학원 인공사상과정수로  
·대한평업진흥공사 석공예기능  
·관련장사 역임  
·전국 기능경기대회 심사위원 역임  
·노동부장관 표창  
·대구기능대학교 명예교수  
·(사)돌문화보존회 이사장  
·제9회 돌문화축제위원회 위원장

인터넷 블로그에 '김국수' 또는 '일심석재'를 검색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 이제 사찰도 화재보험 가입할 수 있다!

현존 대부분의 사찰은 전통적인 목조건물로 축조되어 있고, 초·향·장작등에 노출되어 있어 항상 화재 위험이 상존합니다. 또 대부분 산지에 위치하는 관계로 화재발생 시 초기진화가 어려워 막대한 재산손실을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불의의 사고에 대한 대비책은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비단 화재뿐만 아니라 사찰을 운영하며 교화표교활동을 벌이다 보면 온갖 사고와 자연재해, 신도들의 인적 물적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찰도 합리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 사찰 종합 보험 상품 안내 ◆

구분	와 재	와 재	상 해
기본	화재손해	시설소유 배상책임	24시간 상해
선택	구내폭발손해 풍수재해손해 지진손해	물질손해확장담보 구내치로비 주차장배상책임	교통상해 간병비
담보	의의적인 파고행위 손해 협정보험가액	생산물(음식물) 배상책임	질병시상 수술비용

● 유의사항  
보험회사의 현장위험 심사(실측)후 보험 가입 가능합니다.

● 가입시 필요자료  
◆ 각 건축물의 건축(중개축)년도 및 면적  
◆ 각 보험목적물의 종류 및 수용장소  
◆ 각 보험목적물의 구입년도 및 단가

가입 및 상담 문의 011-648-1203 / 010-9996-7700 동부화재 서일석(無籍) 합창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206호